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되세요

설명절 가정예배

2026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 다 같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39장 ----- 다 같이

기도 ----- 말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의 겉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되게 하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누가복음 5:1-11 ----- 다 같이

1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 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 씀 -----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 ----- 다 같이

찬 송 ----- 찬송가 549장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시간 바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던 베드로의 삶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언제, 어디서 잡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는 고백처럼,
그날은 아무 소득도 없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도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어떻게 다시 시작의 자리가 되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3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일터이자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모셨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5절)
베드로는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실패했던 자리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신뢰했을 때, 베드로는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6절)
베드로는 말로만 동의하지 않고, 실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자리에서 실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만 두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가족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믿고, 순종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 명절,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가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